인쇄노동자를 위한 취업알선센터 활동

최창준
서울지역이쇄노조 부설
취업알선센터 소장

취업알선 센터의 역할

취업알선센터가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거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취업알선센터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정리해고를 막거나 고용안정에 무슨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 바에야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구인구직 소개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적인 요구 중의 하나입니다. 즉, 잦은 이직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활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연례행사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하지만 취업알선마저 체계화된 것은 없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거나 개인적으로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이나 임금수준도 경험이나 느낌으로 서로 정할 뿐이고 근거로 내세울만한 자료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쇄노동자를 위한 취업알선센터는 무슨 큰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초보적인 수준에서나 해결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또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소박하게나마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세업체 노동자의 생활과 조건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열악한 생산활동을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대기업의 하청에 재하청, 또는 수주를 받아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하청관계란 어느 때는 노사관계보다도 더 불합리하거나 억울할 정도로 서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회사에 목매달린 신세라 어떤 경우에도 발주자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이란 말할 필요도 없을만큼 열악합니다. 또한 규모도 영세하고 한 직장의 인원도 몇몇에 불과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기도 어렵고, 그 결과 사회적인 보장이나 대책 마련을 물론, 초보적인 단계의 의견수렴조차도 안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기술교육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몇 년의 시다 생활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도 기술을 숙련시키기 위해서는 직장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영세한 곳에서 기술교육의 투자가 없기도 하고 다양한 생산품이나 기계를 접촉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직장을 옮겨야만 봉급이나 직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배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한 직장에 장기근속한 사람이 직장을 옮겨다닌 사람보다도 작책이나 임금 등 모든 조건에서 뒤떨어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또 한 직장에만 있다 보면 다양한 기술의 습득(예를 들어 인쇄물의 처리능력)에서 불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자주 직장을 옮겨 다니게 되는 것이 상례이고, 때로는 이러한 모습이 노사간에 상호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불성실하다고 여기고,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을 하면 더 손해를 보는 것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단위사업장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아예 포기하고 사는 셈이지요.

또 나이가 들어면서는 스스로 영세업주가 되거나 혼자 기계를 돌리는 자영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노동자로 되돌아 오기도 합니다. 차츰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는 잘 고용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작지 않은 규모의 공장장이나 공장관리자였다가 나이 때문에 물러나 보조로 재취업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기계를 구입해 사업을 차리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팀핑이 판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기간 일했다고 퇴직금이 제대로 나온다거나 무슨 연금이 있다거나 하지도 못하고 지금과 같은 IMF 시절에는 실업급여니 하는 사회보장에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업장에서 흩어져 일하다보니 요구나 생각이 다양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런 조건인데도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거나 모임을 만들거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본 경험,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조직이나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주위의 객관적인 조건도, 함께 공동의 문제를 갖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갖기가 부쳑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드물게 사업장에 노조나 분회가 설립된 곳도 있었지마는 그러 오랜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친목회 정도이고 축구 모임이나 등산 등의 취미 모임이 존재하는데 어느 모임도 인쇄업계에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거나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노동자들뿐이 아니라 영세사업주도 마찬가집니다. 사정이 이러니 영세업계에 대한 사회의 각종 정책에 대해 여론을 모아낼 주체도 없고 대부분은 무관심과 냉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취업알선센터가 하는 일

취업알선센터에서는 지난 3월 마지막 주간에 4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전면적용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설문조사 목적은 작은 인쇄출판업체에서의 가입 현황은 어떤지, 고용보험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짐작컨대 영세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어 실제 적용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반발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조사의 다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과 요구, 의견을 듣기도 전에 원초적인 무관심과 냉대에 조사원들이 무척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주만이 아니라 노동자들까지도 대부분이 아예 무관심이거나 잘 모른다는 답, 오히려 냉소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문전에서 밀려

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센터는 이러한 무관심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사회의 각종 권리나 사회보장 혜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제도(고용보험) 시행을 하기 전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한다면, 이제까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느닷없이 고용보험 들라고 하니 이게 왠 귀찮은 일이냐는 것이고, 수입만 축내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못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혜택이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은 경험상 아주 어려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 나라의 정책이나 사회의 관심 밖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왔는데 늙고 병들면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그 업계를 떠나든지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영세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는데 제대로 함께 상의해 본 바도 없는데 왠 참견이냐는 것이지요.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조건과는 다르게 노사간에 해결할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직장 생활이 대기업과는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투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활동이나 개별기업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노조활동만으로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뛰어넘는 공동의 요구나 현안, 또 사회보장이나 각종 사회적인 대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이 시기적인 현안이 대중적으로 집중된 관심사로 모이지 기에는 앞에서 보듯이 아직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는 고용보험 적용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센터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인쇄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차원이라도 각종 모임을 조직하

고, 각종 현안에 대한 설문이나 실태 조사를 벌여 쟁점을 찾아내고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계기를 끊임없이 모색하려고 합니다. 영세업체의 실업문제를 갖고 노동자들을 만나고 의견과 실정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되고자 합니다. 노조의 틀거리 보다 더 넓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산별로 가기 위해서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조직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에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대중적이고도 주체적인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급격하고도 엄청난 인쇄업계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산별로의 전환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입니다. 전자, 통신, 영상매체의 발전과 대중화는 이제까지 인쇄업계의 상황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활판이나 조판 기술자들, 사진제판 기술자들이 어느 새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기술자가 되어갔듯이 엄청난 고용의 변화도 예상되어집니다. 취업알선센터와 형제조직인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사업방향에 맞추어 취업알선센터도 구인구직알선만이 아니라 산업변화에 따른 공동대책위 마련, 직업교육의 체계화 등을 과제로 생각하고 그 기초작업으로 멕킨토시 편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회보장 등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삶이 영세업주나 자영업으로 언제나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세업계 노동자들의 실정이 올바르게 반영된 대안이나 정책을 모아내어 정부나 지자체, 또는 각 기관이나 부처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초를 다듬어 나가겠다는 꿈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취업알선센터가 위의 일을 다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할 능력도 없습니다. 단, 첫머리에 말했던 것처럼 노동조합과 더불어 보조 역할과 더불어 사랑방의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진정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생활과 만나고 생활에서 출발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